

東武 李濟馬의 知人論에 대한 理解

張 賢 鎮*

I. 서 론

東武 李濟馬가 추구하는 精神은 知人正己의 自律的 知行을 통한 性命의 완성이며 治平 格致 誠正 修濟라는 儒學的 道德의 경지에 있다 할 수 있다. 知人是 過程이자 目的이고 또한 獨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知人을 위해서는 이해하여야 할 전제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東武公의 四象論이다. 東武公이 제시한 四象論에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四象의 構造的인 관점이고 둘째는 四象의 개개 屬性이나 要素에 대한 관점이다. 즉, 事心身物을 對極, 相資, 相成 혹은 次元의 관계로 본다면 구조적 관점인 것이고 事心身物을 個個의 의미에 주안을 두어 본다면 屬性이나 要素的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事物과 心身, 天人과 性命, 學問과 思辨이라는 식으로 그 구조적 관점에 중심을 둘 수도 있고 地方 人倫 世會 天時, 逸 廣 大 蕩, 口 鼻 目 耳 등 個個의 屬性이나 要素적 관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결국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天人性命이라하여 그 둘의 관점을 하나로 묶어 결론지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天人性命을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天人과 性命, 天性和 人命, 天命과 人性의 3가지 對極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天人性命이라는 個個 屬性 및 要素의 要素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天機 人事 行其知 行其行 혹은 각 四端 個個의 의미해석으로 擴充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事心身物의 의미가 그 構造와 屬性안으로 흡수되어 있다. 즉 天人性命이라는 함축된 구조로의 변화가 四象論을 이해함에 더 근접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東武公이 구성한 人間觀을 知人論이라 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넓은 의미의 四象論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성의 여러 기본 요소들을 다시 이해해 봄이 좋을 듯하다.

II. 본 론

1. 四象의 構造的 認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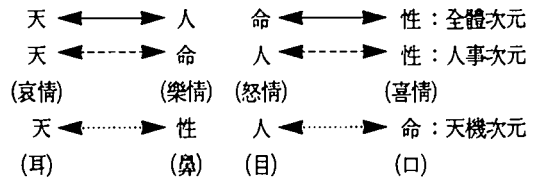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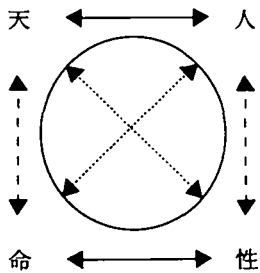
太陽 少陽 太陰 少陰이라는 공통적인 四象용어를 事心身物이라든가 天人性命으로 다시 상징하신 이유는 周易과 다른 의미와 구조를 표현하려고 한 것

* 한성한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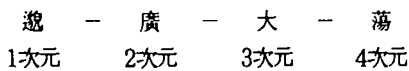
이다. 格致藁에서는 事心身物을 孟子的 四端과 연계시키며 個人적의미 一의 止行覺決, 사회적의미 萬의 居群聚散을 제시하여 一과 萬이라는 個人次元과 社會 혹은 天下의 次元으로 양분하여 單數와 複數, 個人과 社會, 個人과 天下식의 對對關係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1> 또한 事物과 心身으로 양분하여 설명되기도 하고 事心과 身物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物宅身 身宅心 心宅事라하여 事心身物간의 연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東醫壽世保元의 경우는 한걸음 더 발전하여 첫째, 天과 人, 性和 命의 對對, 天과 命, 人과 性의 對對, 天과 性, 人과 命의 對對식의 對對構造로 둘째, 1次元 2次元 3次

元 4次元식의 分化構造로 셋째, 臟腑論에는 天-命-人-性-天-命-人-性-天……식의 上下前後循環構造로 넷째, 四象屬性중 한가지 屬性이 大하고 對極이 적용되는 한가지는 小한 四端大小構造를 가지며 다섯째, 天과 性은 複數 概念으로 人과 命은 單數의 概念으로 單數複數構造 등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그 중 對對構造는 天機에서는 주로 天과 性, 人과 命의 관계가 적용되고 人事에서는 天機의 對對關係를 포함하여 天과 命, 人과 性의 對對關係가 적용되며 天人性命의 전체 구조에서는 天과 人, 性和 命으로 對對關係를 취하여 커다란 對對構造를 이루게 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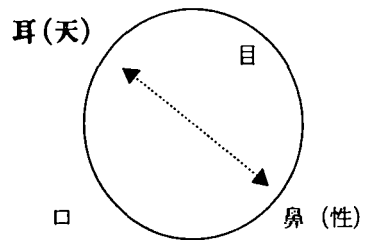
1) 對對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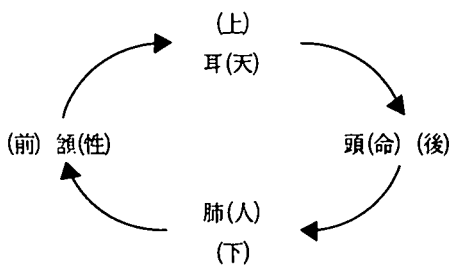
2) 分化構造



4) 四端大小構造



3) 上下前後循環構造



5) 單數複數構造



<그림 1>

<丑 1>

四象	物	身	心	事
一(個人)	止	行	覺	決
(個人次元의 德目)	勤	能	慧	誠
萬(社會)	居	群	聚(合)	散
四端	仁	義	禮	智
屬性	遠	近	小	大
自我實現	修齊	誠正	格致	治平

<丑 2>

四 四 端 으 로 분 화	四端	仁	義	禮	智
	事四端	貌	言	視	聽
	事四端之用	肅	艾	哲	謨
	事四端之欲	詐	懶	侈	嗇
	心四端	辨	思	問	學
	心四端之用	明	慎	審	博
	心四端之欲	慾	逸	放	私
	身四端	屈	放	收	伸
	身四端之用	積	廊	弘	豁
	身四端之欲	竊	妬	欺	奪
	物四端	志	膽	慮	意
	物四端之用	利	勇	謨	知
	物四端之欲	夸	伐	矜	驕
	天下狀態 傳達媒介	樂	喜	怒	哀
天下狀態	濟	整	和	周	

2. 四象의 屬性 要素의 認識

四象의 屬性을 한 개씩 따로 고려함은 주의가 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屬性和 要素의 認識은 構造의 認識을 보충하고 더욱 擴充함을 목적으로 하며 構造 속에 屬性이 屬性 속에 構造가 同時的으로 認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孟子의 四端에서 擴充 되었기에 기준이 있는 만큼 四端과의 연계는 格致 藁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본다. 四四端은 바로 四端 의 擴充의 결과로서 天人性命으로 규정되어진다. < 표 2, 표 3 >

<丑 3>

四端	仁	義	禮	智
萬(天下極)	居	群	聚	散
極	逸	廣	大	蕩
圖之得 ¹⁻⁷⁻¹⁰	方	倫	會	勢
天機로 分化	地方	人倫	世會	天時
心四端	辨	思	問	學
四臟	腎	肝	脾	肺
人事로 分化	居處	黨與	交遇	事務
物四端	志	膽	慮	意
物四端之欲	夸	伐	矜	驕
前四海	志	膽(操)	慮	意
私心	夸	伐	矜	驕
行其知	腹	臍	臆	驕
博通으로 分化	度量	行檢	經綸	籌策
身四端	屈	放	收	伸
身四端之欲	竊	妬	欺	奪
怠行	竊	懶	侈	奪
行其行	腎	腰	肩	頭
獨行으로 分化	方略	材幹	威儀	識見

天機 人事 行其知 行其行의 個個 屬性의 基準은 바로 仁義禮智 인 것이다.

3. 四象 構造와 屬性의 結合

四象 構造와 屬性을 함께 結合시키면 人體構造가 그려질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의 臟腑論을 그림으 로 그려보면 <그림 2>와 같이 된다. 天機 人事 行 其知 行其行의 배치는 反誠箴에서 心身을 관찰함에 는 誠身(前) 敬身(後) 理心(左) 利心(右)으로 구분 하였고 "身之上下 直行, 心之左右 廣湯 故 身之左 右 橫 心之上下 出沒 卽…… 私放逸慾之所致…非擇 乎中庸 允執厥中之 上下左右也"라하여 心은 左右로 身은 上下를 축을 삼아 前後로 나누었고 身이 左 (整齊知行之術; 我) 右(平均財祿之權; 他)로 橫行

합과 心이 上(中庸之道 一身立誠於昊天之下 形於上; 未來) 下(大學之德 萬物同胞於大地之上 形於下; 過去) 로 出沒함이 다 私放逸慾 때문이라하였다 이는 性命論과 臟腑論으로 이어지며 觀於天(天機; 大同; 上) 立於人(人事; 各立; 下) 行其知(性; 博通; 前四海) 行其行(命; 獨行; 後四海)으로 구성되어진다.

다음은 四象人으로의 連繫이다. 즉, 四端大小構造의 결합이 되는 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나타난다. 각 四象人別로 天機 人事 博通 獨행의 대상처가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太陽人인 경우 觀於天하는 天機에 대해서 耳(聽)가 天時에 能히 廣博하고 人倫에 不能 廣博하다. 이때 能 廣博의 의미는 耳(聽)가 가지고 있는 機能의 運用이나 限界조차도 적절히 할 줄 안다는 뜻으로 마치 진정한 앎은 무엇을 모르는 지 조차 아는 것이라는 의미와 같은 이해가 필요하며 不能 廣博의 의미는 그 적절함을 예상치 못하며 조절치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야 하고 단지 양이나 강약의 개념만으로 이해되어져선 안되며 결국 好善의 개념도 그러한 能 廣博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하겠다. 물론 複數(大同)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性(哀性; 衆人의 서로 속임을 哀함; 聽; 太陽人 聽의 개념에 四象屬性의 기준이 되는 四端중 智를 포함하여 이해해 봄이 옳다고 보여진다<大同의 智>. 智는 儒略 天勢篇에서 居群合散, 邈廣大蕩과 같이 거론하면서 天下의 (天)勢를 圖謀함에 智를 得한다<1-7-10>하며 天時와의 연계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是非之心 智之端을 이해해 봄에 있어서 이것이나 아니나라는 매우 직관적인 기준이라 볼 수 있고 肺黨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에 기준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보여진다.)의 의미가 있다. 哀氣는 直升한다던가 恒欲進而 不欲退 한다던가 便便然 猶延納人之善惡 亦知之라던가 性質 疏通이라던가하는 설

명은 같은 맥락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이때 적용된 構造는 耳目鼻口를 그대로 天人性命으로 대치했을 때 天과 性의 對對構造와 四端大小構造가 적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太陽人의 人事의 부분이다. 太陽人에 있어서 人事의 부분중 같은 肺黨이 되는 事務의 부분은 惡惡의 次元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太陽人에 있어서 事務는 적절함을 따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벌써 天機次元에서 廣博의 平價를 받고 있는 곳기에 惡惡이라는 各立次元의 表출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立於人함에는 上下의 구분이 表출되고 情氣의 발현처가 된다. 交遇에 能 勇統하다함은 怒情을 잘 운용하여 惡色을 피하여 행할 줄 안다는 표현으로 惡惡의 개념도 太陽人에 있어서는 能 勇統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單數(各立)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情(怒情; 다른사람이 太陽人 自身을 업신여김을 怒함)에 해당된다.

이때 太陽人 交遇의 개념에는 四象屬性의 기준이 되는 四端중 禮를 포함하여 이해해 봄이 옳다고 보여진다. 儒略에서 天下의 (世)會를 圖謀함에 禮를 得한다하며 世會와 禮를 연계시켜 설정해 주고 있다. 즉, 太陽人의 交遇는 天時(大同의 智)에 廣博한 사람이 人事에서 怒情을 表출함에 各立의 禮로서 함을 뜻하게 된다. 적절한 橫升之氣(怒情)의 表출로 交遇에 能히 勇統한다. 太陽人의 문제가 되는 怒情은 黨與에서의 喜가 強做되고 적절치 못하여 暴怒(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은 行身不誠 知人不明이 원인; 적절치 못한 性情의 발현은 中庸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가 나오는 것이다. 恒欲雄而 不欲雌라던가 放縱之心 必過라던가 棄禮而 放縱者 鄙人(格致黨 獨行篇에서 自棄者 自暴者 自陷者 自附者등 스스로 堯舜처럼 못되고 衆人과 桀紂 등과 같이 스스로 計利에 빠지고 從惡하는 자를 鄙薄食儒者라 설명하고 있다; 太陽人의 경우 能 勇統於 交遇하는

各立의 禮에 대하여 충분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그 禮를 스스로 버리고 放縱하며 지나친 怒情만을 표출한다면 그 모습을 鄙人이라 본다고 이해 할 수 있다)이라던가 材幹은 交遇에 있다라는 등의 설명이 가능하다. 이때 人事에 있어서는 표출된 情氣의 對對관계가 중심이 되어지는 데 怒情과 喜情의 對對構造가 적용된다.

(立於人; 身은 上下로 直行함에 觀於天의 天機와 그 對對構造에 있어서 다른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표출되어진 情氣에 대해서는 直立한 人體로서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의 원리에 對對構造가 직접 적용 받게 된다. 단 性氣의 경우는 肺脾肝腎에 더 근본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太陽人의 行其知는 臍에 있다. 存其心 養其性의 대상처이다(이때 養其性의 性은 天機次元의 四端大小에 의해 不能 廣博한 鼻嗅 人倫을 말한다). 天人性命(知行)의 구조에서 前四海에 해당하며 장차 鼻에 油海의 清氣를 공급하는 주역이다. 太陽人에 있어서 天機와 人事의 부분은 그 속성상 大同의 智(天時)와 各立의 禮(交遇)에 대한 好善 惡惡의 표현이었다. 모든 인간에게는 四端이 존재한다 단지 差等적으로 존재하기에 四象人이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四端大小構造는 여기서 天機人事의 부분에서 키우지 못한 부분을 行其知, 行其行의 부분으로 私心과 怠行의 부분으로 知行의 修行處로서 큰 몫을 남겨주게 된다. 즉,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어느 한 기능만 가지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된다. 行其知는 私心(伐心)이라는 방해꾼이 존재하며 太陽人에 있어서는 行檢(太陽人을 大同의 智(天時)와 各立의 禮(交遇)를 天機와 人事로서 지닌 사람이라 한다면 行檢은 大同의 智를 能 廣博하는 사람이 伐心을 이기고 博通의 義에 도달한 絕世의 境地라 해석 할 수 있다)이라는 목표가 상정되어진다. 여기서는 循環構

造와 全體 對對構造가 적용된다.

太陽人의 行其行은 腎에 있다. 修其身 立其命의 대상처이다(이때 立其命은 人事次元의 腎 居處를 말한다) 後四海로서 장차 腎에 精海의 清氣를 공급할 주역이 된다. 앞서 밝혔듯이 太陽人은 大同의 智(天時), 各立의 禮(交遇), 博通의 義(行檢)로서 四端大小構造를 극복해 가야할 사람이다. 行其行은 怠行(竊心)이라는 방해꾼이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면 大人의 方略(大同의 智를 가진 太陽人이 獨行의 仁에 도달한 상태)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4. 各 四象人의 天人性命

太陽人의 天機：天時(大同의 智)；衆人之 相欺；
聽；哀性

人事：交遇(各立의 禮)；別人之 侮己；
怒情

行其知(性)：行檢(博通의 義) 伐心
行其行(命)：方略(獨行의 仁) 竊心

少陽人의 天機：世會(大同의 禮)；衆人之 相侮；
視；怒性

人事：事務(各立의 智)；別人之 欺己；
哀情

行其知(性)：度量(博通의 仁) 夸心
行其行(命)：材幹(獨行의 義) 懶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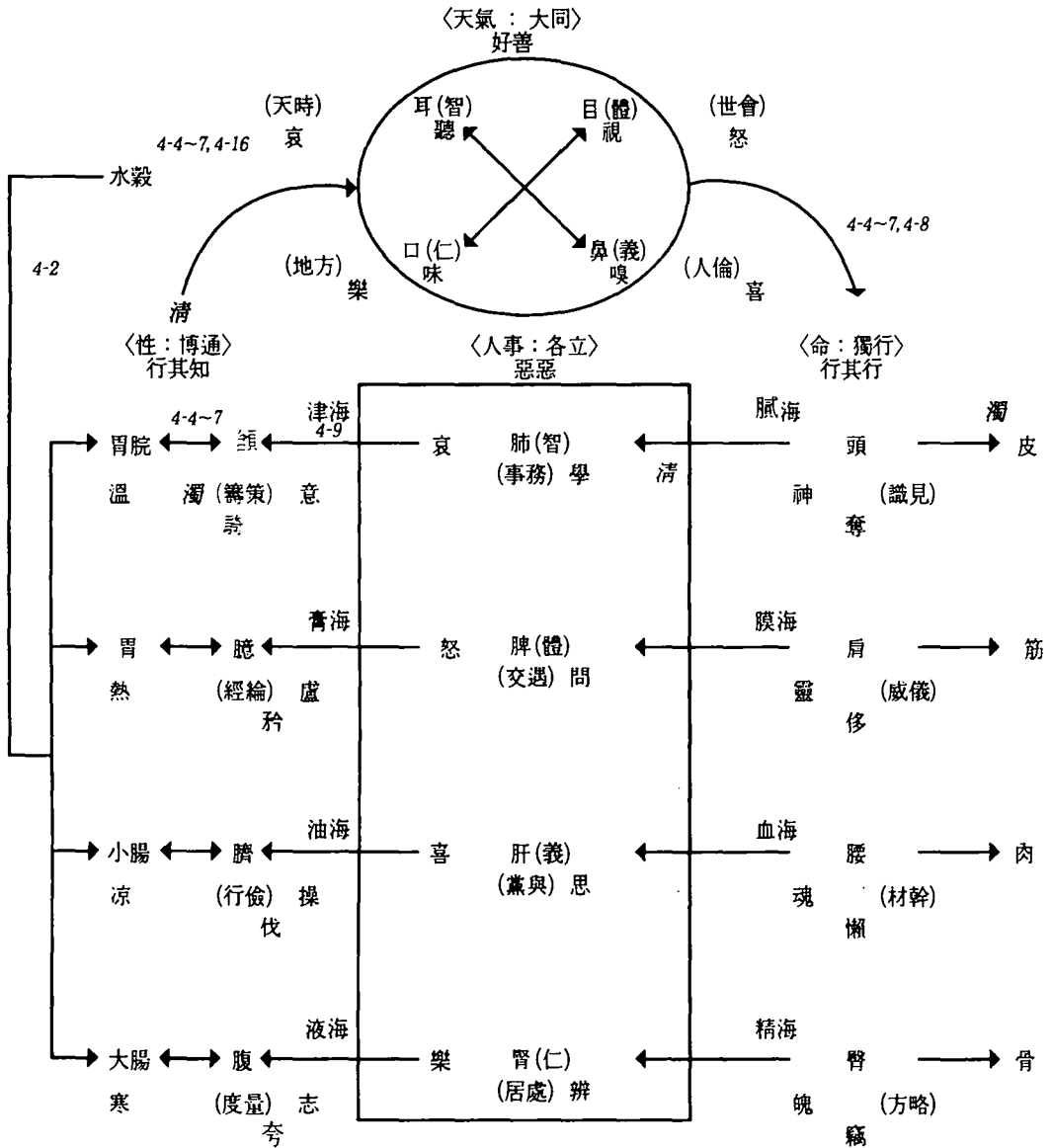
太陰人의 天機：人倫(大同의 義)；衆人之 相助；
嗅；喜性

人事：居處(各立의 仁)；別人之 保己；
樂情

行其知(性)：籌策(博通의 智) 驕心
行其行(命)：威儀(獨行의 禮) 侈心

少陰人の 天機：地方(大同의 仁)；衆人之 相保；
 味；樂性
 人事：黨與(各立의 義)；別人之 相助；

喜情
 行其知(性)：經綸(博通의 禮)矜心
 行其行(命)：識見(獨行의 智)奪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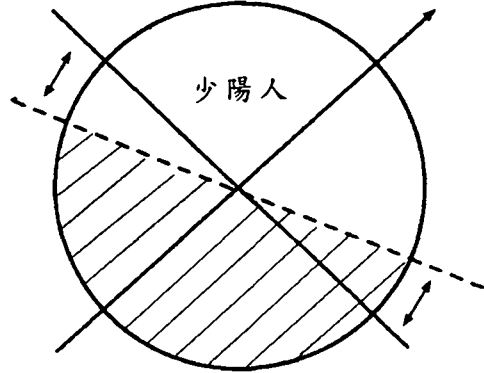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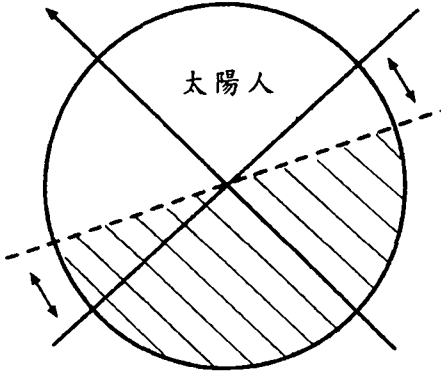
〈그림 2〉 人體構造

天; 天時
哀極不濟則忿怒激外

人; 交遇
哀性極則哀情動

人; 事務 表順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怒性極則哀情動

天; 世會 表裡俱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怒極不勝則悲哀動中



命; 方略(竊物) 表逆
五加皮壯脊湯
喜樂虛動 怒益偏

性; 行檢(伐操)裡
藤植腸湯
暴怒必在於黨與 肝傷

性; 度量(志)裡
涼膈散火湯
地黃白虎湯
暴哀必在於居處 腎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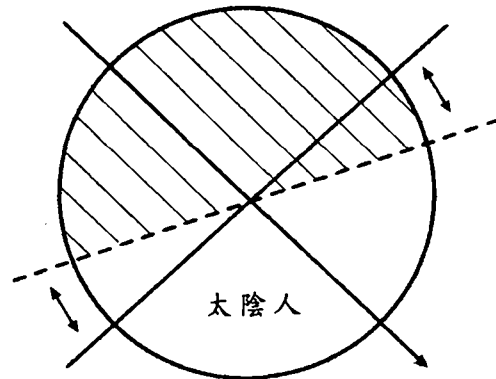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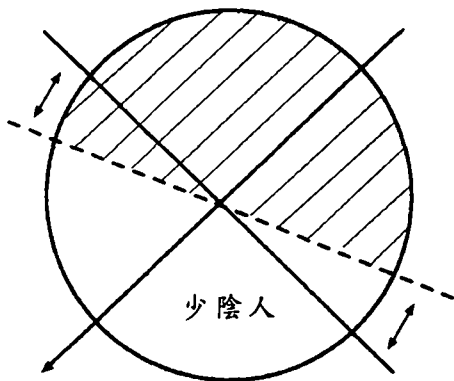
命; 材幹(懶卑) 表逆
滑石苦麥湯
荊防地黃湯
豬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喜樂虛動 哀益

命; 識見(奪利) 表逆
黃芪桂枝湯
升陽益氣湯
哀怒虛動 喜益偏

性; 經綸(矜慮)裡
桂枝半夏生薑湯
香砂養胃湯
寬中湯
白何烏理中湯
浪喜必在於交遇 脾傷

性; 策(驕意)裡
熱多寒少湯
清肺瀉肝湯
葛根解肌湯
浪樂必在於事務 肺傷

命; 威儀(侈尊) 表逆
石膏蒲遠志散
清心蓮子湯
哀怒虛動 樂益偏



天; 地方 表裡俱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樂極不成則喜好不定

人; 黨與 表順
川芎桂枝湯
八物君子湯
香附子八物湯
樂性極則喜情動

人; 居處 表順
熊膽散
補肺元湯
太陰調胃湯
喜性極則樂情動

天; 人倫 表裡俱
鹿茸大補湯
拱辰黑元丹
喜極不服則侈樂無厭

5. 知人の 要點

獨行篇에서는 不動心 을 知人の 요점으로 제시했고 反誠箴에서는 喜怒哀樂 未發而 中이라하며 恒戒함이 知人の 요점이라 하였다. 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피관찰자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喜怒哀樂之氣를 경계하여 상대적인 편차를 느끼고 그에

따라 知人하라는 뜻이 된다. 자신의 喜怒哀樂의 恒心을 알고 완전히 未發의 상태로는 못하더라도 恒戒라도 노력하기 위해서 不動心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며 마치 이는 달리는 차에서 다른 차량의 속도를 재고자하는 일과도 같으며 그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다.